



[산업]
6년 만에 돌아온
기아차 '더 K9'
05

금호타이어
STX조선

Economy

코스피 2485.52 (+10.49)	코스닥 890.40 (+9.43)
금리 2.29 (+0.01)	환율 1068.60 (-3.00) (20일)

시험대 오른 구조조정

'법정관리' 최후 통첩에도
금호타이어, 부분파업 돌입
STX조선도 내일부터 파업

'고통분담'이라는 정부의 기업
구조조정 원칙이 시험대에 올랐다. 정부가 해외매각이든 강도높은 인력 감축이든 고통분담에 나서지 않으면 법정관리 밖에 없다고 최후 통첩을 했지만 금호타이어와 STX조선해양 노조 모두 '파업'으로 대응했다.

정부가 제시한 데드라인은 금호타이어가 이달 30일, STX조선이 다음달 9일이다. 하지만 부분파업을 거쳐 총파업이 예고된 상태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호



STX조선해양 노조가 지난 19일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담은 사측의 계획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부분 파업을 알렸다.

/연합뉴스

타이어 노조는 이날부터 오는 23 일까지 광주·곡성 공장에서 각각 8시간 부분파업에 들어갔다. 24일에는 광주공장과 곡성공장에서 총파업과 함께 '금호타이어 해외매각 반대 집회'도 열릴 예정이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앞서 지난 9

일 부분파업을, 지난 14일 총파업에 나선 바 있다.

그간 금호타이어 노조가 요구했던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과의 면담이 전일 성사됐지만 의견차이는 전혀 좁혀지지 못했고, 노조는 면담 직후 파업 계획을 알렸다.

STX조선도 상황은 비슷하다. STX조선 노조도 "노동자 생존권이 담보되지 않은 자구계획은 단호히 거부하겠다"며 22일부터 이틀간 부분 파업 방침을 밝혔다. 경고성 부분 파업을 한 뒤 이후에도 사측의 변화가 없다면 26일부터는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앞서 정부는 중견조선사 처리방안을 발표하면서 성동조선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통해 회생 가능성을 판단하고, STX조선에 대해서는 사업재편과 고강도 자구노력을 전제로 회생을 결정했다.

정부의 요구에 STX조선이 생산직의 75%에 달하는 인건비를 줄이는 구조조정을 단행키로 하면

서 노조의 반발이 거세졌다.

STX조선 노조는 "공식적인 자구계획을 확인한 결과 히망퇴직과 아웃소싱 등 인적구조조정이 포함돼 노조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금융논리로 사람 자르기식 구조조정을 진행하겠다는 정부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거부 방침을 분명해 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문제와 지역 경기 침체는 분명 안타깝지만 일본과 중국 조선업계는 이미 4년전부터 구조조정을 진행해왔음을 감하면 피할 수 없었던 결정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고용을 위한 조건 없는 자금 지원은 없다는 원칙을 확고히 했지만 노조의 반발에 이들 기

업들의 운명은 예측불가 상태다. 일단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금호타이어 노조와 언제든 다시 대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전일 서로의 극명한 의견 차이를 확인한 만큼 노조 측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다시 한 테이블에 앉기에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제 경영정상화를 위해 남은 시간은 금호타이어가 십여일, STX조선이 20일 안팎이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금호타이어는 채권단의 만기 유예가 끝나는 순간 유동성도 끝난다"며 "산업은행의 의지를 떠나서 해외 자본 유치가 아니면 어느 누구도 회생 시킬 능력이 안된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고통분담' 대신 총파업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文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동계올림픽·패럴림픽 계기 장애인 차별없는 사회돼야"

장애인 체육 활성화 등 주문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패럴림픽을 계기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별없이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대책을 점검해 달라"고 관련부처에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패럴림픽의 감동이 일회적인 일로 끝나지 않도록 장애인 체육을 활성화하는 계기로 삼아달라"며 이 같이 당부했다.

그러면서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장애인 체육시설을 점차적으로 늘려나갈 수 있는 방안은 마련하고, 현재의 실태와 함께 앞으로의 계획을 보고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평창올림픽과 패럴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룬 모든 국민에게 감사의 인사도 잊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최선의 노력으로 진한 감동을 안겨준 우리 선수들,

"주총 대란... 102개 상장사 의결정족수 비상"

금융위, 주총 비상대응반 회의 예탁원에 지원반 운영 전자투표이용 적극 독려

지난해 말 쇄도보팅제(Shadow Voting, 의결권 대리행사제도) 폐지 이후 처음 열리는 상장사 정기 주주총회에 비상이 걸렸다. 금융당국은 상장회사 102곳이 의결정족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과 증권예탁결제원은 '주주총회 비상대응반' 운영을 통해 정족수 확보를 지원키로 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0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상장사 주주총회 비상대응반 회의'를 열고 "상장사들이 원활하게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는 감사위원회 선임안건의 의결정족수가 일부 부족했고, 1개사는 표 대결 과정에서 안건이 부결됐다.

특정일에 주총이 몰리는 '슈퍼 주총데이' 현상도 완화됐다. 지난 해엔 892개 회사가 같은 날에 주총을 개최했으나 올해는 539개로 줄어 1일 집중도가 약 20% 감소했다.

다만 전자투표를 신청한 상장사는 지난 18일까지 총 483개로 지난해 668개에 비해 30% 줄었다.

12월 결산법인 1947개 중 250개 사가 주총을 분산 개최하고 전자투표를 시행하기로 한 반면, 810

개사는 집중일에 주총을 열면서도 전자투표를 활용하지 않았다.

김 부위원장은 "앞으로 2주간 1768개 상장사 주주총회가 열린다"

며 "이 중 102개 기업이 상당수가 의

결정족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지 못해 주총 비상대응반에 의결권 지원 확보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주총 비상대응반'은 이날부터 2주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주총 특별지원반'을 운영하며 102개 기업의 지분 분석을 통해 부족한 의결정족수를 파악하고, 의결정족수 충족을 지원하기 위해 주주와 기업들에 전자투표 이용을 적극적으로 독려할 계획이다. 또 주총을 일일 모니터링하고 주총 안전 부결 원인을 분석해 주총 사후 관리도 진행한다.

금융투자협회는 증권회사를 통해 주주에게 연락하고 자산운용사 보유 지분의 의결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다.

/체신화 기자 csh9101@

'혁신금융 입증' 핀테크 기업, 최대 4년간 규제 면제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추진 간편결제·블록체인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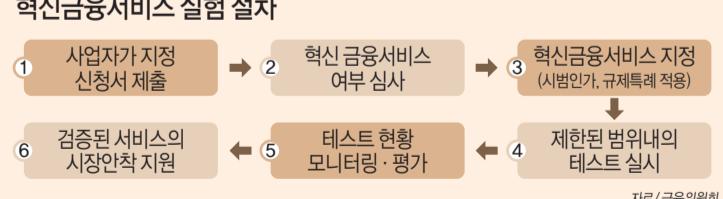
'혁신금융서비스'를 입증받은 핀테크기업이나 기존 금융회사는

최대 4년간 각종 규제를 피할 수 있다. 법 개정 없이 가능한 위탁테스트, 지정대리인 등 테스트베드 도 시행한다.

또 공무원이 상관의 부당한 지시에 맞서 소신있게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도 새로 만들었다.

국가공무원법 제57조에 '상관

혁신금융서비스 실현 절차



가능하다.

최훈 금융서비스국장은 "금융업 전반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혁신 서비스에 굉장한 수요가 발생할 것"이라면서도 "기존 금융사들이 혁신지원특별법을 통해 기존 규제를 우회·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전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당국은 관련 법이 개정되기 전에 도 위탁테스트, 지정 대리인 등 금융 테스트베드를 시행하기로 했다.

새로운 서비스 도입 시 금융법 상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도록 핀테크 기업이 비조치의견서를 발급 신청하면 30일 이내 회신토록 한다. (3면에 계속)

/김승호 기자 bada@

금융위원회는 20일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혁신금

융심사위원회인 금융위원회가 최종 지정한다.

혁신금융사업자는 별도의 금융업 인허가 등 없이 지정받은 범위내에서 혁신금융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으며, 특례를 인정받은 금융규제는 적용받지 않는다. 다만 금산분리, 전업주의 등 금융의 핵심원칙은 유지한다. 최대 2년 범위에서 지정하고 이후 2년 연장이